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945천 km ²	GDP	251억 달러 ('11)
인구	4,620만 명 ('11)	1인당 GDP	544 달러 ('11)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대외정책	친서방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572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와 4,2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도로, 전력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산업발전에 제약이 크나 방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연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마찰이 없어 내란과 테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잔지바르 분리 독립 문제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1961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권여당인 혁명당(CCM)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대선에서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큰 정치적인 이슈는 없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최근 연 6~7%의 경제 성장세 지속

- 2003~08년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 항만, 호텔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입은 서비스 산업(GDP의 약 50% 점유)의 급속한 성장과 금, 다이아몬드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업 부문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에도 FDI, 수출 및 관광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금 수출의 호조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경제성장률이 6.0%로 전년 보다 소폭 감소),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로 빠르게 회복되었음.
- 2011~12년에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국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6%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가격과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성이 큰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및 원유의 가격 상승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 12.1%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식료품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바스켓 조정으로 식료품의 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었음.
- 2011년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에는 긴축재정정책 시행, 탄자니아 실링화 가치의 점진적 안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7.1	7.4	6.0	7.0	6.4
재정수지 / GDP	-0.9	-2.1	-4.6	-6.4	-6.9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0.3	12.1	6.2	12.7

자료: IMF, EIU.

□ 재정수지는 적자 증가세

- 재정수지는 정부가 성장·빈곤감축 전략(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Poverty: NSGRP)에 따라 인프라 확충, 빈곤 감소 프로그램 추진,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의 지출을 증대함에 따라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세수 기반이 열악하여 재정수입의 약 40%를 대외 원조와 양허성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07/08년(회계연도: 7.1~6.30)에는 7%대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으로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2008/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원조 감소 등으로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6%로 다시 확대됨.
- 2010/11년에는 탄자니아의 권력층 부패, 부진한 구조개혁과 아울러 원조국의 국내 여건에 따른 대외원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6.4%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낮은 농업생산성

- 농업은 GDP의 28.4%, 노동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경작지가 국토의 약 4%에 불과한데다 소규모 생계농이 대부분이고,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작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열악한 도로, 전력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최근에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나 도로 및 전력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도도마(Dodoma), 다르 에스 살람(Dar es Salaam), 아루샤(Arusha)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지방도로는 10% 정도만이 유지 보수되고 있는 실정임.
- 전력 부문의 경우, 대부분이 수력발전으로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이 불안정한 반면 수요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발전기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전력단가가 높은 편임.

나. 성장 잠재력

□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및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생산되는 광물)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요 광물의 확인매장량은 금 4,500만 온스, 다이아몬드 2,000만 캐럿, 니켈 150만 톤 등이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1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광물자원의 추가적인 매장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다. 정책성과

□ 농업 현대화 추진

- 니에레 초대대통령은 2001년 농업분야 개발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 키크웨테 대통령도 2009년 중농정책(Kilimo Kwanza)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동 계획에 따라 2010/11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6%에서 10%로 증액되었으며, 2011년에는 5,000억 달러의 촉진기금을 마련하여 남부농업성장지대(SAGCOT)에 상업적 영농을 추진 중임
- SAGCOT는 탄자니아의 국토의 약 1/3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에 커피, 담배, 차 등 주요 환금성 작물을 재배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2차 성장·빈곤감축 전략(2011~15년)에서도 정부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을 우선개발대상산업으로 명시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감축을 강조하고 있음.

□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탄자니아는 현재 총 연장 10,300Km의 주요 국도 중 약 70%에 달하는 도로의 정비와 3,000Km에 달하는 신규 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통합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 아울러 2012년 말까지 900MW의 전력을 추가 생산하고 국내 부존자원인 천연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방식으로 전력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계획을 토대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 중임.

□ ‘Tanzania Vision 2025’를 수립하여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

- 정부는 원조에 대한 의존성 및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함으로써 2025년에는 중소득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여전히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유로본드의 발행을 추진하는 등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가능한 자체 조달하려는 자립적 경제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인프라건설에 따른 자원 마련을 위해 2012년 말까지 7.5억 ~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행된 유로본드 중 최대 규모임.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 1990년대 무역개방 이래로 탄자니아의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음.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광업, 제조업, 통신업을 중심으로 자본재의 수입이 빠르게 급증하여 상품수지는 적자기조이며 광업 부문 외국 기업들의 송금 증가로 소득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에 12.9%까지 확대되었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감소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여 9.1%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입액 증가하였으나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원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와 금 가격의 상승세로 인한 상품수출액의 증가 등의 요인이 대외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8.3%로 축소되었음.

- 2011년에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유의 수입 부담과 신규 가스전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7.9%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증가추세이나 외채규모는 보다 빠르게 증가

- 외환보유액은 금 및 관광산업에 대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7년 29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2009년에 32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4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규모는 2000년대 중반의 대규모 외채 탕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05년 78억 달러(GDP의 55%)에서 2007년 50억 달러(GDP의 29.8%)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8년 59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5 배 수준인 89억 달러까지 급증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1,849	-2,675	-1,934	-1,978	-1,983
경상수지/GDP	-11.0	-12.9	-9.1	-8.3	-7.9
상 품 수 지	-2,634	-3,434	-2,540	-2,828	-2,867
수 출	2,227	3,579	3,295	4,297	5,238
수 입	4,861	7,012	5,834	7,125	8,106
외 환 보 유 액	2,870	2,847	3,206	3,645	3,470
총 외 채 잔 액	5,008	5,964	7,325	8,257	8,936
총외채잔액/GDP	29.8	28.7	34.3	34.7	35.6
D . S . R .	1.5	1.1	3.1	2.6	2.6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자카야 키크웨테(Jakaya Kikwete)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 탄자니아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95년까지 현 집권당인 혁명당(Chama Cha Mapinduzi:CCM)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음. 이후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다당제로 변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정·재계 요직에 CCM 인사들이 자리잡고 있어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10년 10월 대선과 총선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CCM이 승리하고 키크웨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음.
 -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Chadema)이 선거부정을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경찰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슈화되지는 못하였음.
-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빈곤율 등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도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Vision 2025'를 수립함으로써 삶의 질과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5년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잔지바르 분리 독립 움직임 지속

- 1964년 대륙본토인 탕가니카(Tanganyika)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과거 오만의 지배를 받아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Zanzibar)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공화국이 출범

- 탄자니아 정부는 잔지바르에 자치 정부와 의회를 허용하고 화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잔지바르에서는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 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2001년에는 잔지바르섬과 펨바(Pemba)섬 일대에서 최대 야당인 시민연합 전선(Civic United Front: CUF)의 주도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군경의 유혈진압이 이어져, 독립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음.
- 이후 탄자니아 원조 공여국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양당 간에 평화회담 (Muafaka)이 시작되었으나 최근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CUF 내부의 과격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잔지바르 근처 해양에서 상업적 개발가능성이 있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3. 국제관계

□ 주요 서방 원조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식민지 시절의 종주국이었던 독일, 영국 등 서방국가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1960~70년대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던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키크웨테 대통령은 과거 10년간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원조 공여국들과도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들의 원조액은 매년 탄자니아 예산의 40~50%에 상당하는 규모임.

□ 동아프리카공동체를 통한 역내 협력 추진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는 2005년에 관세동맹을 발효하고 2010년에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며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967년 결성된 EAC는 각국의 주도권 다툼으로 1977년에 해체되었으나, 2000년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를 주축으로 재결성되었음. 2007년 7월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있음.
- 궁극적인 정치·경제 동맹체 구축을 목표로 2011년 1월 단일 통화 도입을 위한 공식기구를 발족하였으나 지역통합 추구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반발에 대한 우려로 정책의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
- EAC는 2008년 8월 아프리카 내 지역공동체인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과도 무관세, 무쿼터제를 골자로 하는 단일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동 FTA가 창설될 경우 아프리카연합(AU)의 회원국 절반이 참가하는 인구 5억 명, 통합 GDP 6,240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현은 불투명한 상황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

- 2001년에는 HIPC Initiative¹⁾ 대상국 중 최초로 완료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양자간 채무를 경감받았으며, 2006년에는 G8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MDRI²⁾에 따라 다자간 채무 24.3억 달러를 탕감 받았음.
- 이로 인해 외채잔액의 대 GDP 비율이 2004년 69%에서 2008년 GDP의 29%로 대폭 하락한 바 있음.

1) 고채무저소득국 채무구제(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Initiative)는 저소득국의 과중한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채무완화 방식(세계은행, IMF의 양허성차관과 파리클럽에 의한 리스케줄링)보다 외채경감 폭이 확대(67%→ 80%) 되었음.

2) 다자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는 세계은행의 IDA와 IMF, AfDB, IADB 등 4개의 기구가 HIPC Initiative상의 완료점에 도달한 국가에게 채무 잔액을 전액 탕감해주는 채무구제의 최종단계임.

□ **교역규모**

- 2010년에 교역규모 1억 7,78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1억 4,920만 달러로 다소 감소(수출: 9억 1,111만 달러, 수입: 7천만 달러)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기타석유제품 및 기타섬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제품과 기호식품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2년 3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19건, 726.4만 달러**

<표 4>

한·탄자니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1~5월)	주요품목
수 출	107,324	91,111	44,833	합성수지 기타석유제품 기타섬유제품 등
수 입	70,475	45,093	11,066	동제품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탄자니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가진 높은 개발 잠재력과 관광업, 통신, 금융부문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 위주의 저개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1인당 GDP가 500달러 수준에 머물렀음.
- 경제적으로는 대외 원조, 광업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취약점이 있으나, 주요 수출품인 금의 국제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최근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CCM이 오랜기간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키크웨테 (Kikwete) 대통령이 2010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 한 잔지바르 분리 독립 운동은 여전히 사회 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 외채 비율이 낮고, D.S.R.도 2%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유나영(☎02-3779-5724)
E-mail : smilenayoung@koreaexim.go.kr